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SPOILS

가제 : 전리품

저자 : Brian Van Reet

출판사: Lee Boudreaux Books

발행일: 2017년 4월 18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소설/전쟁소설



**이라크 전쟁 한복판에 선 두 명의 군인과 이슬람 전사, 각자의 눈으로 본 전쟁의 참상과 무게
9·11 테러 후 군에 자원 입대하여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뒤 청동 성장까지 받은 군인 출신의 작가**

매일 거의 비슷하고 그리 특별할 것 없는 삶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쟁은 먼 나라 이야기로만 들린다. 그러나 지금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적과 총을 겨누고, 적의 총을 피해 숨는 것이 일상인 사람들이 있다. 군대나 전투 집단의 일원으로 살고 군인이나 전사가 자신의 이름이자 삶이 되어버린 이들에게 전쟁은 어떤 의미일까? 잔혹한 전쟁터에 들어서게 된 사연, 그 지옥 같은 삶을 버티는 방식이나 생각은 제각기 다르다. 9·11 테러 후 군에 자원 입대하여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뒤 청동 성장까지 받은 군인 출신의 작가는 이 소설에서 전투가 삶이 된 세 명의 인물을 통해 그 다양한 모습을 전한다. 뺏속까지 전쟁을 즐기는 어린 소녀 병사, 불필요한 살육과 전쟁의 모든 면에 진절머리가 난 전차대원, 그리고 선택의 여지 없이 이슬람 전사로 평생을 살았지만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한 남자. 소설은 이라크 전쟁의 한 켠에서 싸우는 이 세 사람을 번갈아 조명하며 인간의 생명과 존엄이 가장 노골적으로 위협 받는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그 상황을 직접 겪는 이들의 고통을 고발하며 전쟁이 남의 일로만 여겨지던 사람들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준다.

열아홉 살인 카산드라는 이라크 트라이앵글 타운에 주둔 중인 미군 중에서도 가장 위험천만한 인물로 꼽힌다. 전쟁터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건 곧 ‘최고의 군인’이란 의미이다. 보통은 두려움과 수치심을 자극 받는 훈련을 통해 평범한 사람도 강한 군인으로 변모하는데, 카산드라와 같은 타고난 군인들은 싸움의 목적이 무엇이건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면서도 전쟁이 개인적인 일인 양 분노의 감정을 담을 줄 알고, 그런 상황 자체에 큰 압박을 느끼지 않아서 필요할 때면 태평한 마음으로 지낸다. 서른 살이 넘으면 아무리 효과적인 훈련도 사람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바꿔놓기 힘들지만 카산드라는 피가 펄펄 끓는 십대라 철저한 전투병으로 금세 적응했다. 살면서 누구에게나

축적되는 경계심은 고통과 치욕스러운 감정이 뒤엉킨 고된 훈련으로 싹 지워졌고 죽음에 대한 공포마저 극복했다. 카산드라는 철저한 훈련과 교육을 스펀지처럼 흡수한, 가장 위험한 군인이었다.

선한 자와 악한 자, 승자와 패자의 경계가 모호해서 더욱 두렵고 끔찍한 전쟁의 실상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과격 테러조직인 지하드의 일원으로 살아온 아부 알 훔은 최근 들어 점점 늘어나는 조직원들 때문에 어안이 병병하다. 자신이 이슬람 전사가 되기로 결정한 건 아버지의 뜻이기도 했고, 너무 어릴 때의 일이라 기억도 잘 나지 않는데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후 아프리카 대륙과 이집트, 중동 국가들은 물론 유럽 사람들, 심지어 미국인까지 이슬람 ‘순교자’가 되겠다며 찾아오기 시작했다. 나눠 먹을 식량은 점점 부족해지는데 흑독하기로 유명한 아프가니스탄의 겨울이 코 앞에 닥쳤고, 이 많은 형제들을 조직이 다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아부 알 훔은 낯선 나라에서 굳이 지하드를 찾아온 이들을 보면서, 이슬람 전사로서의 금지와 자신의 삶에 대해 부쩍 고민이 깊어졌다. 지하드가 추구하는 목표는 정말 이슬람 민족의 평화일까? 무엇을 위해 싸우려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뿐이었다. 철었던 시절에는 죽음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을 힘을 달라고 신에게 기도했던 그는 이제 올바르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시작했다.

폐허가 된 이라크의 한 고속도로 근방에 자리잡은 탱크에서 선임 한 명, 운전병 한 명과 경계 근무 중인 슬리드에게 전쟁은 하루하루가 실망과 좌절의 연속이었다.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가끔 몰래 마약이나 코로 들이키고 비디오 대여점에서 푼돈이나 버는 생활에 질려 원가 제대로 살아보자고 자원한 군대인데, 전쟁의 실상은 슬리드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도 너무 달랐다. 나라와 평화를 수호한다는 전쟁의 자명한 목표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늘 붙어 지내는 상관은 하루 종일 카메라를 품에 끼고 적군의 시체나 전쟁의 참혹한 현장을 찍느라 정신이 팔려 있고, 탱크 운전병인 피츠패트릭은 그를 말리기는커녕 부추기거나 한다. 몸이 불타 손이 갈고리처럼 변형된 사람들, 치아가 석탄처럼 새카맣게 변해버린 난민들도 슬리드의 상관에게는 클로즈업으로 담아내기엔 딱 좋은 멋진 전리품일 뿐이었다. 이런 한심한 작자들, 이런 명분 없는 전쟁에 자신이 끼어 있다는 자체가 슬리드에게는 전쟁보다 더한 고역이었다. 얼마 후, 총격전을 벌이던 카산드라는 적에게 인질로 잡혀가 감옥에 갇히고 그곳에서 아부 알 훔을 만난다. 점점 더 과격해지는 이슬람 전사 조직의 경계 없는 폭주에 당혹해 하던 그는 형제들이 붙잡아오는 인질이나 적군에게 조직원들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전쟁 범죄에 해당되는 상관의 무모한 행위를 하는 수 없이 지켜봐야 했던 슬리드는 염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대가와 마주하게 된다. 작가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무질서와 혼란 속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가는 전쟁의 실상과 그 속에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흡입력 있게 집어낸다. 인간이 시작한 이 싸움의 대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브라이언 반 릿(Brian Van Reet)은 미군에 탱크 전차대원으로 자원 입대했다. 전역 후 미주리 대학교와 텍사스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뉴욕 타임스> 등 각종 간행물에 글을 기고했다.

제목 : WHEN WINTER IS OVER

가제 : 겨울이 가면

저자 : Thomas Verbogt

출판사: Nieuw Amsterdam (네덜란드어 원작)

발행일: 2015년 9월(네덜란드어 원작)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소설



**네덜란드의 두 개의 주요 문학상 후보에 오른 소설, 사소한 과거의 기억을 쫓아 재구성하는 과정
네덜란드 도서 소매업체가 부여하는 상 <Boekhandelsprijs> 결선에 오르며 15,000부 이상 판매**

다른 사람과 어쩌다 눈이 마주친 순간이나 우연한 접촉,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그 몇 초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 네덜란드 출신의 작가는 주인공이 수년 동안 그런 찰나의 시간을 회상하는 이야기를 통해 삶이란 무엇인지, 흘러 보낸 시간 속에 담긴 진실은 무엇인지 명상하듯 그려낸다. 2016년 네덜란드, 벨기에 도서에 수여되는 중요한 문학상 <ECI Literature Prize>의 본선에 진출하고, 네덜란드가 부커 상을 본 따서 1993년부터 수상하기 시작한 문학상 <Libris Literature Award>의 결선에 진출하면서 문학성을 인정받은 소설이다.

이야기는 집을 떠나려고 짐 정리를 마친 레베카 누나를 보면서 주인공이 부모님께 전해 들은 누나의 출신과 과거의 이야기를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주인공이 태어났을 때 이미 열살이던 레베카는 친 누나가 아니라, 독일에서 네덜란드로 온 어린 아이를 부모님이 데려다 키운 아이였다. 1944년 여름, 겨우 두 살 나이에 독일의 어느 철로 근처에서 발견된 레베카는 마음씨 좋은 독일인들의 손에서 자라다가 고향인 네덜란드로 보내졌다. 친부모는 마우타우젠 강제수용소에서 모두 목숨을 잃고, 홀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녀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주인공의 부모님은 아직 결혼을 하기 전에 동거를 하다가 갈 곳 없는 레베카를 자식으로 받아들였고, 레베카는 그때부터 줄곧 ‘베키’로 불리며 한 가족으로 한 지붕 아래 살아왔다. 베키가 열 살일 때 주인공이 태어나고, 몇 년 뒤에는 여동생도 태어나 다섯 명이 된 식구는 나이메헨의 북적북적한 거리에 부부가 처음 얻은 살림집에서 그대로 계속 살아왔다. 주인공은 부모님에게 베키 누나의 사연을 들은 뒤부터 집에 여러 권 꽂혀 있는 전쟁에 관한 책들을 수시로 읽어보곤 했다. 전쟁의 참상이 그대로 담긴 책 속 사진들은 꼼꼼하게 보기 싫으면서도 묘하게 마음을 사로잡는 구석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보는 일은 왠지 모를 죄책감을 안겨 주었다. 주인공은 뭐라 정확하게 설명할 순 없지만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한 그 마음처럼, 우리가 결코 딱 꼬집어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음을 떠올린다. 길을 걷다가 마주친 사람이 잠깐 던진 눈길, 그때 상대방의 얼굴에 희미하게 떠오른 미소, 스쳐 지나면서 살짝 서로의 몸이 닿는 순간들이 그렇다.

찰나의 순간, 아무 의미도 없었던 사소한 일들에 담긴 묵직한 의미를 찾아가는 명상 같은 이야기

작가는 주인공이 떠올리는 기억 혹은 관념을 그대로 따라가며 전한다. 길을 가다 보면 목적지로 가는 방법을 몰라 헤매는 사람들이 있고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은 기꺼이 가는 법을 알려준다. 아침 가는 길이 겹치면 잠시 함께 걸어가기도 한다. 주인공은 우리가 걱정스러운 일이나 기쁜 일을 남과 나누는 방식도 생각을 나눔으로써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점에서 닮은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가는 길이 겹치는 시간이 잠깐이듯 나의 경험은 오롯이 나만의 경험일 뿐이다. 어느 정도는 남과 함께할 수 있지만 남이 나의 경험을 똑같이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소한 경험일수록 그 경험의 의미를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알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자기 스스로도 그냥 지나친 일들이 전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와락 떠오를 때가 있다. 날이 어둑해지는 시간, 어스름이 내려올 무렵 문득 몇 시간 전에 스친 누군가의 미소나 잠깐 부딪혔던 순간이 생각나고, 그 일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경우가 그렇다. 그냥 흘러간 줄 알았던 그 미소와 그 접촉이 내 머릿속에 다시 떠오른다 한들 나타난다면 그것을 무어라 설명할 수 있을까? 주인공의 삶의 모든 일이 결국 그와 같이 형용할 수 없는 강렬한 느낌과 뒤늦은 깨달음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늦게나마, 당시에는 몰랐던 과거의 스쳐간 순간들을 머릿속으로 복원하기 시작한다.

네덜란드 신문 「NRC Handelsblad」의 서평처럼, 작가는 과거를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일에 깊은 믿음을 갖고 몰두하는 주인공을 통해 끊임없이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힘과 불확실성을 감내하는 꾸준한 탐색이 주는 끌림을 독자들에게 전한다. 네덜란드 언론 「De Volkskrant」는 상상 속의 기억을 완벽하게 다듬고 보존하려는 주인공의 시도는 정신적으로 무한한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이자 영감을 일으키는 일이며, 작가는 비등한 사건과 기억을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상상의 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하며 문학적 인상주의의 특징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과정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다시 보면 아주 사소하고 희귀한 순간 순간의 무사한 차이와 격차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되는, 그래서 충격에 휩싸이는 효과를 실현했다. 또 다른 신문 「De Telegraaf」가 정리했듯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이야기는 이미 종결된 사건을 되짚어보면서 몰랐던 의미를 찾고 새롭게 해석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조용히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아주 작은 요소에 담긴 거대한 의미를 과장 없이 담백하게 그려낸다.

네덜란드에서 두 가지 문학상과 함께 도서 소매업체가 부여하는 상 <Boekhandelsprijs> 결선에 오르며 15,000부 이상 판매된 소설이다.

<저자 소개>

토머스 베르보크트(Thomas Verbogt)는 소설과 단편소설, 희곡 다수를 발표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단편 모음집 『What Exactly Is the Purpose?』와 『Really Something for You』, 소설 『Perfect Silence』, 『Color of Happiness』 등이 있다.

제목 : A LADY'S GUIDE TO LITERATURE

가제 : 문학을 광고하는 여자

저자 : Sally Franson

출판사: -

발행일: -

분량 : -

장르 : 소설



**자신만만하고 유능한 광고계의 샹젤레,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한 여성의 솔직 담백한 성장기
광고와 예술의 만남, 돈으로 팔 수 있는 것과 그럴 수 없는 것, 기막힌 프로젝트가 가져온 혼란**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졸업하자마자 광고 회사에 들어가 몇 년 만에 회사의 신임을 받는 인재로 떠오른 잘 나가던 여성이 꿈만 갖은 기회가 걸린 프로젝트에 뛰어든 후, 앞으로 쪽쪽 뻗어가기만 하던 인생 행로에서 처음으로 갈림길을 만난다. 벌어들인 수익이 성공의 지표인 광고 업계와 정반대에 서 있는 문학, 그 두 가지를 접목하려는 시도가 그 동안 잊고 있던, 혹은 여태 깨어난 적 없던 마음속의 무언가를 건드려 위험 신호를 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예술과 돈, 그 사이에서 피어난 갈등에는 ‘문학계의 아이돌’로 불리는 미남 작가와의 만남도 큰 몫을 한다. 북미 지역 판권으로 수익 달러가 제시된 이 흥미진진한 소설에서 극심한 심적 갈등을 통해 성장하는 주인공은 엘리자 벅크스의 소설 『서툰 서른 살(A Girl's Guide to Hunting and Fishing)』의 주인공이나 『브리짓 존슨 다이어리』의 개성 넘치는 여주인공처럼 독자들에게 왠지 모를 친숙함과 함께 깊은 여운을 남긴다.

케이스는 ‘광고 인민 공화국’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회사에서 입사 5년 만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자리를 차지했다. 윗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존재, “참신함” 면에서는 다들 따라갈 수가 없다고 혀를 내두르며 재능을 타고 났다는 소리까지 수시로 듣는 케이스에게 회사는 참 많은 것을 이룬 곳이자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곳이다. 다 큰 어른이 되어도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희한하게도 회사에서 처음으로 소속감이라는 걸 느꼈으니까. 케이스가 속한 광고 부서는 딱딱한 서열도 없고 열린 공간에서 다 같이 일을 하고, 오후가 되면 전면 유리로 된 창가에 만들어진 휴게실 겸 바에 모여 와인 한잔을 나누며 직원들끼리 허물없이 대화를 나눈다. 직원들이 일터를 ‘집’처럼 느끼게 하려고 노력하는 회사의 바람처럼 케이스는 정말로 회사가 집과 다름 없는 곳으로 느껴졌다. 영문학을 공부한 케이스가 광고회사를 간다고 했을 때, 같은 과를 나온 동기이자 지금도 같은 집에 사는 제일 친한 친구 수잔은 깜짝 놀랐다. 작가로 성공해보려고 하루하루 전쟁을 치르며 궁핍하게 지내는 수잔은, 밤마다 자신과 페미니스트니 마르크시즘이니 하는 골치 아픈 주제를 이야기하며 지적인 고민에 빠지면서도 다음 날이면 오로지 상업성이 목표인 광고를 만들러 출근하는 케이스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곤 한다. 하지만 케이스 역시 빠듯하게 살아야 하는 생활을 고집스레 이어가려는 친구를 이해할 수 없었다. 멋지고 화려

한 삶,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케이시에게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중요했다. 회사에서 극비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

광고와 예술의 만남, 돈으로 팔 수 있는 것과 그럴 수 없는 것, 기막힌 프로젝트가 가져온 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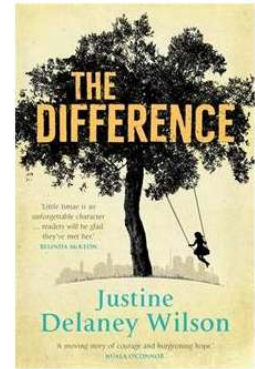
사건의 발단은, 케이시가 한 편도 놓치지 않고 챙겨보는 TV 리얼리티 쇼 <진짜 주부들>로 유명인사가 된 엘렌 행크스가 케이시의 회사에 일을 맡기면서 시작됐다. 엘렌은 엄청난 인기에 힘입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만든 온갖 제품과 브랜드를 출시했는데, 단일한 브랜드로 깔끔하게 정돈하고 싶다고 했다. 저칼로리 보드카며 ‘단백질 너겟’, 보정 속옷 브랜드 ‘쉐입 업’까지, 우후죽순으로 시중에 나온 자신의 브랜드들을 한데 묶어서 사람들에게 통합된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다는 것이 엘렌이 바라는 것이었다. 케이시는 엘렌의 쇼를 보면서 그녀의 광 팬 내지는 골수 팬이 되었기에, 원래 유능한 실력을 더욱 발휘하여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케이시의 직속 상관인 셀레스테는 그 성과에 힘입어 세상을 놀라게 할 새로운 광고 프로젝트를 기획한다. 일명 ‘나유 프로젝트’라 이름 붙이고 극비로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능력에 비해 제대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홀대 받는 작가들과 브랜드를 알리고 싶지만 광고비가 부족해서 고민인 업체들을 연결시켜서 양쪽 모두에게 좋은 일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작가는 자신의 실력을 세상에 널리 알릴 기회를 얻고, 업체들은 거액의 광고료를 들이지 않고 브랜드를 알릴 기회를 얻는 것이다. 회사 전체가 기대를 걸고 야심 만만하게 시작한 이 중요한 프로젝트는 케이시에게 맡겨지고, 셀레스테는 케이시에게 놀라운 제안을 내밀었다. 존재감 없는 브랜드의 회생을 도와줄 작가 중에서 셀레스테가 지목한 첫 번째 주인공, 벤 윈터를 설득해서 참여하겠다는 허락을 받아내면 <진짜 주부들>의 프로듀서와 개인적으로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주겠다는 것이다! 케이시는 그 기회를 얻기 위해 능력을 총동원하는데, 벤 라이터라는 작가는 심지어 멋지고 잘생기기까지 한 외모로 케이시의 마음을 한눈에 사로잡아버렸다. 게다가 만나면 만날수록, 벤은 작가로서의 능력만 걸출한 것이 아니라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다.

일과 사랑,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눈 앞에서 있는데, 케이시는 광고 일을 시작한 후로는 처음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 예술을 철저히 돈으로 성패가 갈리는 일과 접목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 광고로 ‘판매’하는 상품에 예술을 포함시키는 것, 회사가 집이고 일은 평생 직업이라 확신했던 케이시는 중차대한 결정의 기로에 놓인다.

<저자 소개>

샬리 프랜슨(Sally Franson)은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예술석사를 취득하고 현재 동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Witness, Room Magazine」, 「The Great River Review」 등에 글을 기고해 왔다.

제목 : THE DIFFERENCE
가제 : 차이
저자 : Justine Delaney Wilson
출판사: Hachette Books Ireland
발행일: 2016년 11월 3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소설



마흔을 앞두고 덜컥 들어선 새 생명, 남들과는 다른 둘째 아이가 가르쳐주는 삶의 진짜 얼굴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냉소적인 시선, '나만 아니면 돼'라는 현대인의 이기심과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묶인 개개인의 구성원이 견뎌야 하는 몫을 현실적으로 그려낸 소설

서른 아홉, 이제 마흔을 앞두고 그 동안 제쳐두었던 꿈과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시작해 볼 만한 일들을 꺼내어 보려던 베스에게 전혀 뜻하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다. 계획에도 없던 임신을 한 것이다. 재산이 좀 '있는' 부류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남의 시선을 신경 써가며 사는 것도 지치고, 이제 질풍노도 사춘기에 막 접어든 아들 알렉스를 돌보는 것도,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는 뉴질랜드 출신의 남편 스티브를 달래는 것도 다 신물이 난 베스는 결혼하느라 그만둔 일을 다시 시작하거나, 스티브의 뜻대로 이 지겨운 동네를 떠나든 아일랜드를 아예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던 중이었다. 이런 시기에 임신이라니, 베스도 스티브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였지만, 찾아온 생명을 버릴 수는 없었다. 그런데 몇 개월 뒤 태어난 딸 이스메이는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고 가족의 인생에 거센 폭풍이 불기 시작한다. 사람은 누구나 다르지만 이스메이는 그 차이가 태어나자마자 너무 선명하고 또렷하게 드러나는 아이였다. 다운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혹시 압니까, 이 아이는 꽤 영민하고 건강하니, 나중에 괜찮은 카페에서 일 자리를 얻을지도 모르죠!” 이스메이를 안고 베스 부부가 퇴원수속을 밟고 있을 때, 담당의사는 작별인사하듯 이런 말을 건넸다. 세상에 태어난 지 이제 겨우 일주일 된 아기에게 의사란 사람이 이런 말을 스스럼없이 던졌으니, 동네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부유한 집 저택들이 늘어난 베시 힐에서 베스는 곧바로 유명인사가 되었다. ‘다운증후군 있는 애 엄마’라고 이야기하면 온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기와 베스의 가족들을 측은하게 여기고, 가엾다는 눈길을 던지며 말없이 어깨를 두드리주었지만, 다들 꼭 닫힌 자기 집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안도와 감사의 말을 쏟아냈다. 자신들이 저런 일을 겪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냐고, 저 집엔 어찌 저런 불행이 닥친 거냐고 혀를 골골 차면서.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태도보다 베스와 스티브를 더 무겁게 짓누른 건, 이제는 정말 꿈이 되어버린 수많은 계획들이었다.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아이가 생겼으니 원래 하고 싶었던 일들이나 현실로 만들고 싶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던 목표가 손 끝도 닿지 않는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버린 것을 부부 모두 잘 알고 있었다. 그 허탈함과

조용한 분노는 두 사람의 마음에 날카로운 가시로 자란다. 결국 이스메이가 태어나고 불과 몇 개월 뒤, 베스와 스티브의 결혼생활은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이한다.

소중한 것을 어쩔 수 없이 잃고 그 상실을 통해 더 큰 것을 발견해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

‘이스메이가 가지고 태어난 것, 남들과 다른 그 차이가 우리 가족을 영원히 갈라놓으면 어쩌지?’ 이스메이가 자랄수록 차이는 점점 더 뚜렷해지고, 베스는 이런 고민에 휩싸인다. 그 무엇으로도 해소될 수 없는 좌절감은 깊어가지만 스티브와 베스는 서로에게 위안을 얻지 못하고 급기야 베스는 거센 분노를 느끼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그저 혼란스럽고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면, 이스메이를 통해 표면화된 갈등과 주변의 긍정적이지 않은 변화는 베스가 꺾고 눌러왔던 억울함과 서글픈 감정에 불을 지핀다. 썩 나쁜 삶은 아니었지만 항상 남을 위해, 수많은 의무에 시달리고 자신보다 남들이 더 편한 쪽, 필요한 것을 챙기느라 자신은 버려야 했던 시간들이 와르르 떠올랐다. 베스가 십대가 끝날 무렵에 겪었던 커다란 사건, 스티브를 만나 아무 준비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일, 몇 분 거리에 사는 엄마가 수시로 찾아와 잔소리며 꾸민을 늘어놓을 때면 늘 어쩔 수 없이 상대해야 했던 세월까지, 베스는 이스메이를 보면서 모른 척 덮어두었던 삶 전체를 되돌아보고, 어쩌면 남들과 다른 딸아이는 삶을 예상치 못한 경로로 만들어버린 문제가 아니라 그대로 계속 가다가 추락했을지도 모를 자신을 구원해준 동아줄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오른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냉소적인 시선,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이기심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현대인들의 얕은 생각과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묶인 개인의 구성원이 견뎌야 하는 몫을 현실적으로 그려낸 소설이다. 허울뿐인 삶과 주체의식이 없이 흘러 보내던 시간을 붙잡아 진짜 인생을 찾으려는 베스의 고된 여정은 분명 평범하지 않은 아이, ‘다른’ 아이 이스메이 덕분에 시작된다. 이 작은 생명은 여러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지만, 베스에게는 자신의 내면을 처음으로 들여다보고 아무도 대신 찾아줄 수 없는 것,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방법과 그 중요성을 일깨워준 열쇠가 된다.

<저자 소개>

저스틴 델라니 윌슨(Justine Delaney Wilson)은 트리니티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더블린 공과대학에서 저널리즘 석사과정을 마쳤다. 이후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면서 10년 넘게 방송 프로덕션 분야에서 일했다. 2007년에 발표한 첫 번째 저서 『The High Society』는 2008년 ‘아일랜드 도서 상(Irish Book Awards)’의 올해의 도서 상 비소설 부문 수상후보에 올랐다.

NON-FICTION

제목 : MATERIAL GIRL, MYSTICAL WORLD

가제 : 물질주의와 신비한 세상

저자 : Ruby Warrington

출판사: HarperElixir

발행일: 2017년 5월 2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영적인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꼭 물질적인 즐거움을 다 버려야 가능한 일일까?

트렌드에 뒤지지 않는 스타일과 초자연적인 힘을 통한 영적 '변신'을 모두 추구하며 사는 방법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다 아는 패션 잡지사에서 일하다가, 자신이 전생에 인어였으며 이번 생에 인간으로 부활했음을 깨닫고 영매가 되려고 공부를 시작한 여성이 있다. 패션 스타일리스트로 일하다가, 장만 청소할 것이 아니라 머릿속도 청소해야 한다며 '정신 해독' 프로그램을 개발한 여성도 있다. 금융권에서 일하면서 최고급 브랜드 정장을 즐겨 입던 또 다른 여성은 현대판 무당으로 변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인생 행로가 이처럼 급격히 다른 쪽으로 바뀌는 여성들이 그리 소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영적인 탐구를 본격적인 직업으로 삼지는 않더라도 우주와 자신의 존재를 탐색하려는 젊은 여성들이 무수히 늘어나는 추세다.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런데 이들은 아주 현실적인 의문을 던진다. 영적인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고, 하늘과 우주의 신비로운 힘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꼭 물질적인 즐거움을 다 버려야 가능한 일일까? 영국과 미국의 여성 잡지사에서 일해온 저자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스타일과 영혼, 아름다움과 행복, 카르마와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법을 추구하는 일은 모두 나름의 의미가 있고, 양자택일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 않게 그 흐름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간파하는 것이 직업인 저자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꼭 맞는 영적인 생활에 대해 이미 '더 누미너스(The Numinous)'라는 웹 사이트를 통해 성심껏 안내해 왔다. 그리고 이 책에서 스타일과 문화, 영적 계발을 추구하려는 새로운 흐름의 교차점에서 앞서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교훈을 종합하여 제시한다.

저자는 멋지고 트렌디한 생활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이 새로운 시대를 '나우 에이지'라고 명명한다. 1960년대에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는 '뉴에이지' 운동이 등장하여 서구사회가 중시하는 가치를 거부하고 초자연적인 힘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이지만 그 형태가 다르다는 점에서 새롭게 붙인 이름이다. 저자는 영적 사상을 추구한다고 해서 사물을 거부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이야기한다. 세상이 지나친 물질주의와 외모, 최신 기술에 의존하게 되면서 오히려 고대부터 이어져 온 초자연적인 힘을 향한 믿음을

존속시키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점에서 그 두 가지를 떼어놓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소셜 미디어의 탄생으로 의사소통 방식에 엄청난 변화가 일고 누구와도 간편하게 연결되는 세상이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로 인해 소통에서 단절되는 부류가 생겨나고, 소셜 미디어가 나타나기 전보다 더 극심한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하자 점성술이나 명성과 같은 오래된 신비주의 문화가 세상과 개개인을 다시 연결해주는 반창고 역할을 하게 된 것이 그 가장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현대에 들어 다시금 주목 받는 이 오래된 해결방법은 개인과 세상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개개인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과 다시 소통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큰 몫을 해내고 있다. 그것이 이 최첨단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시 신비주의에 심취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저자는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꼭 필요한 버팀목이 된 신비주의의 의미와 철학, 정보를 제시하면서 자신처럼 초자연적인 힘을 깨닫고 전혀 다른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변신’의 과정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안내한다.

<목차>

머리말. 영혼의 벽장에서 빠져 나오는 길

1부. 뉴에이지와 현재

1장. 필수 생존전략으로서의 점성술

2장. 타로카드, ‘나우에이지’에 맞게 해석하는 법

3장. 신체가 있으면 누구나 영매가 될 수 있다 (이하 생략)

2부. 건강과 행복

6장. 어느 요가 수련생의 고백

7장. 명상의 힘

8장. 믿어야 치유된다 (이하 생략)

3부. 사랑, 섹스, 관계

11장. 가장 중요한 소명 (나를 사랑하는 것)

12장. 생리주기는 신성한 여신의 암호

13장. 하늘이 내린 여성성을 찾는 것

14장. 우주의 어머니

4부. 패션과 뷰티 (15-18장)

5부. 사람과 파티 (19-22장)

‘나우 에이지’ 용어집

<저자 소개>

루비 워링턴(Ruby Warrington)은 영국 「선데이 타임스 스타일(Sunday Times Style)」 매거진에서 편집일을 하다가 뉴욕으로 왔다. 2013년부터 현대인의 영적 추구를 돕고 주류문화와 신비주의 세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웹 사이트 ‘더 뉴미너스(The Numinous)’를 운영하고 있다.

제목 : RADICAL CANDOR

가제 : 완전 담백한 상사가 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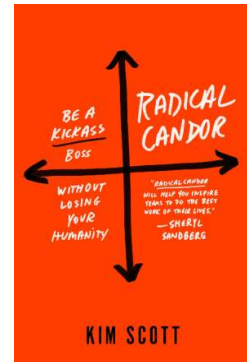
저자 : Kim Malone Scott

출판사: St. Martin's Press

발행일: 2017년 3월 14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경영/리더십



인간성을 굳이 포기하지 않아도 끝내주게 일 잘하고 모두가 선망하는, 좋은 상사가 되는 비결
8년 동안 구글에서 직원 700명인 부서를 이끌고, 애플로 건너가 관리자 교육과정을 개발한 저자

상대방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럴 만한 일이 없다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낫다고들 생각한다. 억지로 짜낸 칭찬은 상대방도 눈치채게 마련이고, 괜히 그런 거짓말 아닌 거짓말로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 입을 다물라는 것이다.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야 그럴 수 있지만,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될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반대로, 상사라는 이유로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직원에게 욕박지르고 소리치고 짜증을 내는 건 어쩔 수 없는 반응으로 용인될까? 그 또한 그렇지 않다. 8년 동안 구글에서 직원 수만 700명인 부서를 이끌고 애플로 건너가 관리자와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개발한 저자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참신한 경영·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완전 담백하게’ 사람을 대하고 이끄는 저자의 새로운 경영 원칙은 이미 「월 스트리트 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스」 등에 소개되며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 불필요하게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상사와 꼭 필요한 꾸지람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물렁한 상사 그 사이에서 철저히 간결하고 솔직하게, 칭찬과 비판을 잘 섞어서 직원 개개인이 주어진 일에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게끔 이끄는 관리자가 바로 저자가 이야기하는 완전 담백한 상사다. 엄하고 냉정해야 일이 제대로 굴러간다거나, 무조건 마음 편하게 해줘야 일을 잘 해낼 거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빠듯한 시간에 원하는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저자는 일류 기업에서 직접 일하고 이후 수많은 유명 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영 수업을 진행하면서 습득한 훌륭한 관리의 비결을 종합하여 담백한 상사가 되어 인간성을 잃지 않으면서 필요한 조언은 정확하게 전달하고 일도, 사람과의 관계도 모두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책 1부에서는 먼저 좋은 상사, 유능한 상사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한다. 개인적인 업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다른 직원을 이끄는 일은 또 다른 문제이고 누구나 상사 역할을 어렵다고 느낀다. 저자는 실제 여러 업체에서 만난 관리자들의 고충을 사례로 들면서 그 공통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 즉 “남의 감정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기본적인 감정이 관리자로서 방해가 되기는커녕 탄탄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완전 담백한 상사로서 직원과 관계를 맺는 방법을 단계별로 제

시한다. 시간을 들여 서로가 신뢰하는 관계를 구축하고, 이 관계를 통해 관리자가 해야 할 기본적인 책임, 즉 업무 목표를 제 시간에 제대로 달성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이유를 설명한다.

성별, 인종, 문화적으로 다양한 직원들로 구성된 팀을 이끄는 관리자에게 담백한 관계를 형성하라는 저자의 리더십 방식은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거나 낮은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왠지 배려하려는 이유에서 과하게 봐주거나, 그러다 폭발하면 과하게 공격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 저자는 이렇듯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팀은 물론 어떤 조직에서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적당한 수준으로 적절한 방식을 통해 자극하고, 인간적인 면을 희생하지 않고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을 상세히 알려준다.

<목차>

머리말

1부. 새로운 경영 철학

- 1장. 완전 담백한 관계를 형성하라
- 2장. 지도를 받고 지도하는 관계, 서로 독려하는 관계
- 3장. 팀원 개개인의 동기를 파악하라
- 4장. 결과는 모두가 협력한 결과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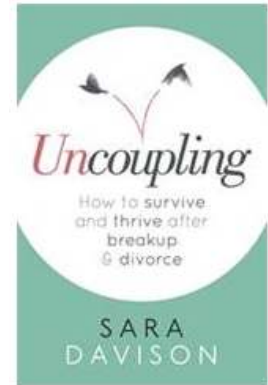
2부. 팀과 기술

- 5장. 관계
- 6장. 지도
- 7장. 팀
- 8장. 결과

<저자 소개>

김 말론 스캇(Kim Malone Scott)은 유튜브, 구글에서 일한 뒤 애플로 이직하여 ‘애플 대학교’를 이끄는 강사로 일했다. 그 전에는 코소보 전쟁 지역에서 소아과 클리닉을 운영하고, 러시아에 다이아몬드 커팅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업체를 운영해 왔다. 애플에서 일한 후에 ‘Radical Candor, Inc.’를 설립하고 드롭박스, 트위터와 실리콘밸리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해 왔다.

제목 : UNCOUPLING
가제 : 이별 코치
저자 : Sara Davison
출판사: Piatkus
발행일: 2016년 9월 1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인생의 큰 기점이 되는 이별, 혼란과 절망을 딛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인 조언
이혼 코치라는 일을 하면서 접한 다양한 사례, 절감한 사실들을 토대로 한 이별 대처 방안**

우리는 누구나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찾는다. 삶의 동반자가 되어줄 사람과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게 마련이고, 상대와 헤어지는 일 같은 건 절대 없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무수한 이유로 수많은 연인과 부부가 이별을 맞이한다. 서로 협의하고 응원해주면서 각자 갈 길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랑했던 순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서로 욕하고, 비난하며 전쟁을 치르듯 이별하는 경우도 있다. 그 형태가 어떠하든 이별은 엄청난 상실감과 혼란을 가져오고, 결국 혼자 남았다는 외로움은 이제 남은 인생이 다 끝났다는 확신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삶의 방향이 사라진 것 같아 몸도 마음도 가장 위태로운 시기, 이별을 맞이한 사람들은 누구나 방향타가 되어줄 무언가가 필요하다. 저자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렸지만 이혼을 하게 된 그 모든 과정을 직접 겪으면서 그런 나침반을 원했지만 찾을 수 없었고 그 필요성을 절감했기에 직접 ‘이혼 코치’가 되었다. 무조건 편을 들어주는 위로나 감정은 개의치 않는 법적인 절차 말고, 그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는 현실적이고 납득이 가는 조언, 저자가 바란 것은 바로 그런 조언이었고 실제로 이별의 시기에는 그만큼 유익한 것도 없다. 이혼 코치라는 특별한 일을 하면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직접 경험하면서 절감한 사실들을 토대로, 저자는 이 책에서 참신하면서도 공감이 가는 이별의 대처 방안을 상세히 제안한다.

총 여덟 장으로 구성된 책에서는 가장 가까웠던 사람과 갈라서는 과정을 차분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한 번에 하나씩, 감정을 감추거나 애써 태연한 척 하는 대신 충분히 드러내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방법이 소개된다. 1장에서는 먼저 위태로워진 관계에서 정말 벗어날 준비가 되었는지 신중하게 고민하는 단계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이별은 어쩔 수 없이 삶의 모든 요소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고, 그러므로 더욱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헤어져도 후회하지 않을 것인지 스스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제시된다. 2장에서는 힘든 시기에 손을 잡아줄 사람들을 마련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이어 3장에서는 이별 후 찾아오는 감정의 극심한 오르내림을 짚어보고, 스스로도 낯선 그 감정들이 모두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4장은 폭삭 가라앉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제시하고, 5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지만 어떻게 해야 과거를 흘려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지는 6장에서는 다시 두 발로 땅을 딛고, 회복으로 가는 길로 몸을 돌려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감정적으로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단계라도 분명 필요한 과정임을 되새기며 힘을 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언들이 제시된다. 7장은 자녀가 있는 경우 이별 후 공동 보육의 중요성과 아이가 이별의 여파에 최대한 덜 시달리게 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마지막 8장에서는 이별 과정이 끝난 후, 새로운 만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끝이 나지 않을 것처럼 암울하기만 한 이별의 과정을 억지로 ‘이겨내는’ 대신 잘 ‘견뎌내는’ 방법을 소개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 능력을 되찾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을 보여주는 유익한 지침서다.

<목차>

머리말

1. 후회하지 않을까? 확신이 필요하다
2. 함께 견뎌 줄 사람들을 찾아라
3.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에 대처하는 법
4. 자신감과 자존감 되찾는 법
5. 과거를 흘려 보내는 법
6. 고대하던 삶을 만들어가는 법
7. 부모의 역할: 공동 육아
8. 또 다른 만남

<저자 소개>

새라 데이비슨(Sara Davison)은 성격 개발과 커뮤니케이션, 심리치료법의 일환으로 1970년대에 개발된 신경언어학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이를 토대로 비즈니스와 일상생활에서 개개인이 겪는 문제를 상담하는 전문가로 활약해 왔다. 이혼 후 이혼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목: JANE AUSTEN: THE SECRET RADICAL

가제: 은밀한 급진주의자: 제인 오스틴 다시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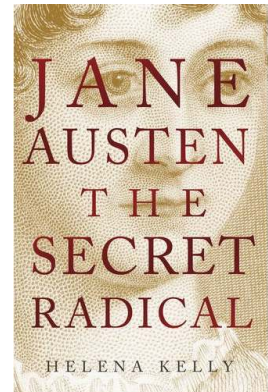
저자: Helena Kelly

출판사: Icon Books Ltd

발행일: 2016년 11월 3일

분량: 304 페이지

장르: 역사/문학



**제인 오스틴 사망 200주년을 맞아 ‘로맨틱 코미디’로만 알려진 작품들을 새롭게 해석해본 안내서
대표적인 작품들을 예로 들며 그 속에 담긴 급진적이고 반체제적인 작가의 정신 소개**

2017년은 제인 오스틴이 마흔한 살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지 꼭 200주년이 되는 해다. 벅크 오브 잉글랜드에서는 이를 기념하여 이 위대한 여류작가의 얼굴이 그려진 10 파운드짜리 지폐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한 나라의 화폐에 들어간 그녀의 얼굴은 실제 얼굴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 지금 제인 오스틴의 모습으로 널리 알려진 그림은 그녀가 사망하고 50년이나 지난 뒤에 가족의 회고록에 실기 위해 한 화가에게 의뢰해서 마련한 초상화다. 고전과 영문학을 전공하고 제인 오스틴 전문가로서 그녀의 생애와 작품을 가르쳐온 저자는, 비단 얼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려진 제인 오스틴의 작품도 실제 작가의 의도와 너무나 다르게 알려졌다고 이야기한다. 제인 오스틴의 소설이 무조건 거대한 자택을 둘러싼 이야기로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그녀의 소설이 전부 독자의 즐거움만을 위해 탄생한 것도 아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인 오스틴의 작품 속에는 페미니즘과 노예, 학대,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세상의 태도, 교회의 권력, 사회의 발전이라는 아주 진지하고 무거운 주제가 짙게 깔려 있다. 무려 200년 동안이나, 작가가 전하려던 숨은 뜻이 왜곡되어 전해진 것은 아닐까? 저자는 이 책에서, 제인 오스틴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예로 들며 그 속에 담긴 급진적이고 반체제적인 작가의 정신을 드러내어 보여준다.

제인 오스틴은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보다 5년 늦게 태어났다. 미국 독립전쟁이 시작되기 바로 한 해 전이다. 그녀가 열세 살 되던 해에 프랑스 혁명이 발발했고, 너무 일찍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생애 대부분의 기간 동안 영국은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오빠 두 명은 해군에, 한 명은 육군에 입대했고 제인 자신도 해군의 주요 기지 중 한 곳이던 사우샘프턴에서 몇 년간 살았다. 쉬지 않고 이어지는 전투와 감시, 검열이 일상이던 시기였고, 사유지가 생기면서 여기저기 우뚝 솟아오른 울타리가 경계라곤 없던 풍경의 모습을 바꾸어놓았다. 점차 세력을 확대해가던 유럽이 세상의 판도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막 싹튼 과학과 기술이 온 세상에 낫설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던 큰 변화의 시기였다. 참 희한한 사실은, 태어난 시기가 5년밖에 차이 나지 않는 워즈워드나 비슷한 시기의 작가들에 대해서는 후세에 남긴 작품의 의미나 배경을 다양한 참고자료

를 통해 재확인하고, 모호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실들도 명확히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지만 제인 오스틴의 작품에 대해서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로지 ‘로맨틱 코미디’라는 진한 간판만 모든 작품에 내건 채, 그 장르에 국한된 의미에서만 작품을 해석하고 감상해 왔다고 저자는 단언한다. 그러나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았던 제인 오스틴은 혁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열정에 찬 여류 작가였고, 당시 문학 장르 중에서는 가장 가볍게 여겨지던 소설이라는 매체를 통해 가장 무거운 주제를 담아낸 영리한 예술가였다. 그녀가 다룬 주제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면 반역죄로 적발될 위험이 다분했기에 무조건 납작 엎드려 피하는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이 가장 잘 하고 좋아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믿는 사상과 정신을 전하려 한 것이다. 줄거리와 등장인물 모두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제인 오스틴의 유명한 작품들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새롭게 읽는 길을 소개하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안내서다.

<목차>

1. 여류작가
2. ‘일상생활의 불안’ - 노생거 사원
3. ‘황동 시대’ - 이성과 감성
4. ‘해묵은 우리의 편견들’ - 오만과 편견
5. ‘연쇄적인 일들, 그리고 교차점’ - 맨스필드 파크
6. 귀리죽 - 엠마
7. 하락, 그리고 추락 - 설득
8. 끝

<저자 소개>

헬레나 켈리(Helena Kelly)는 옥스포드 대학교와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고전문학과 영문학을 공부했다. 옥스포드 대학교 섬머스쿨에서 제인 오스틴 작품을 가르치고, 배스 대학교에서 미국 교환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다양한 국적과 연령대의 학생 수백 명을 대상으로 제인 오스틴을 가르쳤다.

제목 : BE LIKE THE FOX

가제 : 마키아벨리의 기막힌 속임수

저자 : Erica Benner

출판사: Penguin Press UK

발행일: 2017년 3월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역사



목적은 수단을 정당하게 만든다? 악명 높은 군주론과 저자 마키아벨리에 관한 새로운 해석

군주에게는 가장 유익한 조언인 것으로 가장하여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스스로 몰락하게 만드는 책이 군주론의 진정한 저술 목표

마키아벨리는 500년 전에 쓴 『군주론』으로 엄청난 악명을 얻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군주가 비도덕적인 수단을 택해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내용은 ‘마키아벨리즘’이라는 고유 명사까지 만들어내며 그를 정치를 위해 범행을 자행하는 비정상적이고 교활한 정치전략가의 상징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의 생애를 보면, 어딘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그가 살았던 15-16세기 피렌체는 메디치 가문이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군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유가 억압되고 위협 받던 시기였다. 메디치 가문이 처음 정권을 쥐었다가 몰락할 무렵에 공직자가 된 그는 철저한 공화주의자로, 외교 사절로 로마 제국 등에 파견되던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었다. 스페인 침공 후 피렌체 공화정이 무너지고 메디치 가문이 다시 피렌체의 지배권을 회복한 뒤, 그는 피렌체를 폭압에서 구하기 위한 싸움에 동참했다.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부패한 교황과 전제군주로부터 법에 명시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려 앞장섰던 인물이, 어떻게 위대한 군주와 강력한 군대, 풍부한 재정이 갖추어진 국가만이 번영할 수 있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군주는 어떤 수단을 택해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었을까? 이 양극단에 선 행동과 생각 사이에 놓인 어마어마한 격차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저자는 마키아벨리에게 악명을 안겨준 『군주론』이 너무나도 영리한 여우의 간계라고 이야기한다. 책의 주인공인 군주가 아주 흡족해하며 읽을 만한 내용을 쓰고, 그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현실에서 실천할 경우 거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켜 결국에는 자멸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키아벨리가 평소 굳게 믿던 사상과 전혀 반대되는 주장을 펼친 진짜 이유라는 것이다. 실제로 마키아벨리즘을 실현시킨 군주는 몰락의 길에 제 발로 들어섰다. 영국의 헨리 8세와 『군주론』의 표면적인 내용만 받아들여 그대로 왕에게 조언한 토머스 크롬웰이 그 첫 번째 희생자였다. 저자는 정치철학을 다룬 저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에 숨겨진 이 흥미진진한 비밀을 상세히 밝히고, 마키아벨리라는 인물을 처음부터 재평가한다.

체제를 전복시킬 계획을 세우고 반란 음모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고 15년간 일했던 공직을 메디치 가로부터 박탈당한 마키아벨리는 감옥에 갇혀 온갖 고문을 당했다. 그로부터 1년 여 뒤, 책

을 읽고 글을 쓰며 시간을 보내면서 그 유명한 저서가 완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피렌체는 메디치 가의 젊은 군주, 로렌초 2세가 폭정을 휘두르고 있었다. 마키아벨리는 권력에 눈이 먼 군주라면 반드시 받아들이기 통치 기술을 제시하였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뱀이 숨겨져 있었다. 그 대로 실현하면 대중의 증오가 치솟고 결국 파멸을 자초하는 것이다. 군주에게는 가장 유익한 조언인 것으로 가장하여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스스로 몰락하게 만드는 계책이 군주론의 진정한 저술 목표였다.

더불어 마키아 벨리는 그 글을 읽는 독자에게 군주가 자기 손에 쥐어진 권력을 어디까지 휘둘 수 있는지 그 극단적인 예를 보여줌으로써 당시 피렌체 시민들이 당면한 위기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안이한 판단으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 제시했다. 저자는 극작가로도 활약했던 마키아벨리가 문학적인 재능과 정치적 능력을 결합시켜 자신의 진의를 얼마나 교묘하게 위장하여 표출했는지 상세히 설명한다.

<목차>

1. 굳건한 믿음의 중요성
2. 권력은 아무 책임이 없다
3. 알맹이 없는 영광에 속지 마라
4. 의사들을 조심하라
5. 덩치가 크다고 겁먹지 마라
6. 군주를 거론하는 방법
7. 자유를 되찾아라
8. 천국으로 가는 길
9. 현재의 탐욕이 눈을 멀게 한다
10. 제방과 댐을 쌓아라

(이하 생략 - 17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에리카 베너(Erica Benner)는 예일 대학교에서 윤리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옥스퍼드 대학교와 런던 경제대학, 바르샤바 대학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저서로는 『Machiavelli's Ethics』 (Princeton UP, 2009), 『Machiavelli's Codes: A New Reading of the Prince』 (Oxford UP, forthcoming 2013), 『Thucydides' Moral and Political Philosophy』 등이 있다.

제목 : MANAGEMENT STARTS WITH YOU

가제 : 자기 관리부터 시작하는 성공 경영

저자 : Alan Hester

출판사: Robinson

발행일: 2017년 3월 3일

분량 : 192 페이지

장르 : 경영/리더십



고되고 힘들지만 매력적인 자리, 관리자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한 현명하고 실용적인 방법

여러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우선 자신부터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

관리자가 되었다면, 자신의 행동이 구성원에게 끼치는 영향보다는 관찰자가 되어 누군가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을 더 열심히 고민하면 일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

조직에서 관리자가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관리’ 혹은 ‘경영’은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 실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부터 조직 전체를 이끄는 경영자까지, 다양한 레벨의 관리자들을 만나온 저자는 경영을 이렇게 정의한다. “구성원들이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그 구성원들을 통해 일을 해내는 것”. 아마도 대부분의 관리자가 바라는 최상의 결과가 바로 이런 역할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관리자는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가 약속된 자리로 여겨지고, 일은 물론 크든 작든 자신의 관리 범위에 포함된 사람들을 제대로 끌고 가는 일은 쉬운 해결과제와 도전을 요구한다. 그래서 회사 맨 꼭대기 층에 앉아 있는 최고경영자와 중역, 사무실 한 쪽에 앉아 있는 팀장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버거워하고 괴로워한다. 자신이 형편없는 관리자라는 생각이 수시로 괴롭히고,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과 양손에 떨어진 무거운 책임에 짓눌린다. 이런 스트레스와 자책은 관리자의 개인적인 삶까지 슬며시 끼어들고, 가족이나 일과 무관한 인간관계 전체에 영향을 주고 심할 경우 몸에 병이 드는 참사까지 벌어질 수 있다. 정말 관리와 경영이라는 일이 사람을 이토록 못살게 굴 수밖에 없는 걸까? 저자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설명한다. 사람을 이끌고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온갖 힘든 요소와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상쇄할 수 있을 만큼 훨씬 더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즉 잘 해내기만 한다면 소속되어 있는 조직의 성공에 기여하고, 관리자 개인의 삶에 커다란 보람을 안겨주고, 여러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해내는 과정에서 다른 곳에서는 접할 수 없는 것을 배우고, 성취할 수 있다. 자신의 역할을 짐으로 여기는 대신 제대로 된 관리자가 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찾아 그대로 나아가면 된다. 저자는 먼저 그 길을 걸어본 선배로서, 그리고 그 길을 찾지 못해 괴로워하는 관리자들을 안내해 온 경험을 토대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기술, 툴을 이 책에서 제시한다. 자신이 관리해야 하는 팀 혹은 조직 전체, 그리고 자기 자신 모두에게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관리자의 태도와 신념, 행동양식을 모두 배울 수 있다.

여러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우선 자신부터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이나 일을 관리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잘 아는 사람은 드물지만 대부분은 노력하면 배울 수 있다. 관리자가 되었다면, 자신의 행동이 구성원에게 끼치는 영향보다는 관찰자가 되어 누군가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을 더 열심히 고민하면 일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 사람들은 누가 자신을 관리하는 건 원치 않으면서도 자신이 제대로 이끌어지고 있다는 확신과 안정감을 매우 중시한다. 관리자는 인기보다 존경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며, 전통적인 관리 기술은 효력을 잃었으므로 새로운 관리 방식을 습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중점을 두는 곳에서 더 많은 것을 얻는 법이나 올바른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저자는 이와 같이 관리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필수 원칙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간결한 설명으로 전달한다. 한 없이 버겁기만 한 관리자의 역할에서 현재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찾고, 조직과 소비자, 구성원, 자신이 원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모두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꿈 같은 결과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의 기능을 설득력 있게 설명한 지침서다.

<목차>

머리말

- 1장. 모두 관리자에게 달려 있다
- 2장. 자기 관리
- 3장. 다른 사람을 관리하는 일
- 4장. 팀을 관리하는 일
- 5장. 초점, 그리고 더 크게 생각하는(그리고 달성하는) 기술
- 6장. 관리자의 시간 관리
- 7장. 변화와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법
- 8장. 다루기 어려운 사람과 상황을 관리하는 법
- 9장. 관리자를 관리하는 법
- 10장. 참신함과 의미를 잃지 말 것 - 관리의 선순환

<저자 소개>

알란 헤스터(Alan Hester)는 2002년에 리더십과 관리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Alan Hester Associates Limited'를 설립하고, 경영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영국 리더십·경영연구소와 비즈니스·기술교육위원회로부터 인증을 취득했다.